

<여우별마을 - 시나리오>

● 세계관 오프닝

“역대 최고의 취업난.” “취업을 또 최하위 갱신.” “청년이 설자리는?”

인턴도 하고 서포터즈도 하고 공모전도 하고 토익에 컴활 기타 자격증까지.

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지만 “무난하네요”라는 평가와 함께 지원한 회사에 줄지어 차인 주인공.

결국 몸과 마음을 쉴 시간을 마련하고자 귀농을 택하게 되는데..

막상 도착해보니 이곳도 만만치 않은 하나의 사회!

따뜻한 시골 인심도, 남의 집 숟가락 개수까지 셀 수 있는 친분도

도시에서 막 내려온 자신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다.

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.

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도 없는 몸!

주인공은 어떻게든 주민들과 친분을 만들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할 수 있을까?